

로버트 치좀 박사, 아모스: 사자가 부르짖으니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요? 8차시: 아모스 9:7-10, 체에 흔들어 깨우심, 아모스 9:11-15: 행복한 결말

로버트 치좀 박사님의 아모스서 강의입니다. 아모스: 사자가 부르짖으니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는가? 8회차, 아모스 9장 7-10절, 체에 밭아, 아모스 9장 11-15절, 행복한 결말—피와 철이 솟아오르고 라벤더와 장미가 피어납니다.

피와 철은 라벤더와 장미에서 나옵니다. 자, 아모스에 대한 마지막 강의에서, 우리는 9장 7절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9장 7절에서 멈췄던 부분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저는 체에 밭아 흔들어 보았다고 부르고 싶습니다. 읽어보시면 제가 왜 그렇게 말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는 약간의 배경 설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오셔서 율법과 언약을 주셨기에, 그들은 자신들이 주님의 특별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주님께 반역하고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당연하게 여기고, 주님의 백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심판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그의 생애 후반기에 이러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사시는구나. 그분은 결코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실 거야.'라고 생각했지만, 예레미야는 '네, 그분은 하실 수 있고, 또 그렇게 하실 거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사고방식이 여기에도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그들이 이교도라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가 특별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글썄, 주님께서 그들의 발밑에서 그 양탄자를 빼내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에게서 구스 사람들과 똑같지 않습니까?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구스는 에티오피아에 있습니다. 가끔 그렇게 번역되곤 하죠.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에게 대해 말하는 거예요.

고대 이스라엘에게 이곳은 그들이 알고 있던 세상의 경계였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제게는 생김새가 다른 저 멀리 있는 구스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제 말은, 그들은 이 사람들과 어느 정도 접촉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지 않았나? 응. 너희는 내 언약 백성이지.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지만, 나는 오랫동안 사람들을 여기저기 옮겨 다녔어.

에서 온 블레셋 사람들 이요, 길에서 온 아람 사람들이요.

아람의 신탁, 1장에 나오는 아람 사람들을 향한 신탁을 기억하세요. 그 심판 중 하나는 "내가 너희를 길로 데려가서, 너희를 길로 유배 보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길이 어디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아람 사람들이 이주해 온 곳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사람들을 이리저리 이동시킨다. 나는 모든 나라를 다스린다. 나는 어떤 특정 지역의 신이 아니다."

나는 모든 나라를 다스리며, 섭리적으로, 때로는 직접 사람들을 이곳저곳으로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은 내가 다스리는 지구상의 여러 나라 중 하나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꼭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교도들처럼 행동하고 내 언약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고, 블레셋 사람들을 갓돌에서 데리고 나와 여기로 데려왔고, 아람 사람들을 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너희가 쿠시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 그리고 나는 너희에 대한 주권적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러한 토대가 마련되었으니, 너희가 나의 특별한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에 의지하여 잘못을 저질러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주권자이신 주님의 눈이 죄악의 나라를 향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절시키겠지만, 야곱의 자손은 완전히 멸절시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절시키겠습니다.

꽤 심각한 말처럼 들리지만, 그는 그 말을 덧붙입니다. "완전히 파괴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그는 강조 구문을

사용합니다. “하쉬미드, 하쉬미드, 파괴하는, 나는 파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리 없다는 거예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을 겁니다. 야곱의 후손들이여,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님께서 여기서 선포하시는 것은 남은 자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사실, 오래전 게르하르트 하젤이라는 학자가 구약 성경의 남은 자 주제에 관한 책을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남은 자들을 보존하실 것입니다. 이 패턴은 주님께서 오셔서 땅을 멸망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신 홍수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에는 주님을 따르던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소수였죠. 하지만 주님께서 노아를 눈여겨보시고 그의 목숨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기업적으로, 노아의 가족이 그와 함께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믿음의 남은 자들은 항상 있습니다. 주님은 경건한 자들을 결코 쓸어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박국서는 바로 이것에 관한 책입니다.

하박국, 이전 강의에서 언급했으니 더 이상 길게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하박국은 심판이 임박한 이런 종류의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에게 “아니, 내가 항상 의로운 자들을 살피고,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의로운 남은 자들을 보존할 것이다”라고 확신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심판의 말씀은 여기서 절정에 달합니다.

꽤 엄중한 심판이지만, 주님께서 남은 자라는 주제를 제시하시고, 이는 9장 11절에 나오는 행복한 결말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다리를 놓을 것입니다.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열국 가운데서 진동하게 하리라.” 그러므로 포로가 될 것입니다.

곡식을 체에 흔들면 돌맹이 하나도 땅에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체가 정확히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모릅니다. 곡식을 모으고 겨는 아래로 내려가는 걸까요, 아니면 그 반대로 되는 걸까요? 어쨌든 체는 사용될 것이고, 그 체는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곡식과 겨를 분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로운 자들이 보존될 것입니다. 10절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죄인들, 내 백성 중 모든 죄인들이 칼에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앙이

우리에게 닥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자들은 모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러한 생각 때문에 주님께서 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스 사람들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마음대로 다스리고 심판할 수 있으며, 너희에게도 똑같이 행할 것입니다.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10절 끝에 인용된 그들의 말은 그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들의 언약 백성이라는 신분이 그들을 그런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지는 않겠지만, 주님께서 남은 자들을 보존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 가운데 죄인들이 모두 죽는다면, 그의 백성 가운데 죄 없는 자들은 보존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체가 이 둘을 구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약과 성경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보존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를 다양한 장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편 37편에서 주님께서 이 땅에 심판을 내리실 것이며, 연기가 걷히고 심판이 끝나면 의인들이 그 땅에 거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곳곳에서 목격합니다. 불확실한 세상,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다고 믿어야 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선 선지자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세상에 개입하시고 심판을 내리고 계시다는 것은 확신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박국은 고난을 예상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에서 긍정적인 전환이 일어나는데, 11절부터 15절까지가 아모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아모스가 심판과 구원을 함께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9절과 10절에서 일어나는 일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긍정적인 신호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한 결말에 들어가기 전에, 8장 4절부터 9장 10절까지 이 부분의 원리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즉 비극적이고 쓰라린 심판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외동아이를 잃는 것과 같을 겁니다. 적절하고, 적절하며, 처벌은 범죄에 걸맞고, 피할 수 없으며, 차별적일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사건의 긍정적인 면입니다. 차별적일 겁니다.

그럼 책의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 볼까요? 제가 “행복한 결말”이라고 제목을 붙인 이 부분에는 “피와 철이 올라오고, 라벤더와 장미가 올라온다”라는 부제가 있습니다. 이 부제는 19세기의 유명한 구약학자 올리우스 벨하우젠에게서 따온 것입니다. 그는 아모스의 결말이 아모스에서 나올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모스는 피와 철, 심판, 피와 철, 책 전체에 걸쳐 있었고, 이제 라벤더와 장미, 즉 행복한 결말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주장은 반박하기 꽤 쉽습니다.

저는 아모스가 이 글을 썼을 가능성을 부인하는 벨하우젠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의 의견에 강력히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네, 이 글이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온 상황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있고 이제 구원이 있지만, 저는 선지서의 다른 부분에서도 심판을 봅니다. 아모스는 지금까지는 모두 심판이고, 마지막 다섯 구절까지만 언급하며, 9절과 10절에서는 더 나은 미래가 올 것이라는 암시를 살짝 던진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이사야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만, 다른 선지자들은 그렇게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과 구원이라는 꽤 널 구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 1장부터 12장까지, 이사야의 첫 부분에는 무거운 심판이 있고, 2장과 4장에는 구원에 대한 내용이 조금 있지만, 그 부분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모두 구원으로 끝납니다.

심판에서 구원으로 넘어갑니다. 13장부터 27장, 그리고 28장부터 35장까지, 이 세 가지 주요 부분에서도 같은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미 일어난 심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미래의 포로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이 그곳에 있는 것처럼 시간을 앞서가며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판은 이미 일어난 일처럼 이야기하는데, 이는 이 책에서 매우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주님께서 당신 백성을 위해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이 실현될 것입니다. 호세아를 읽어보면 심판, 구원, 심판, 구원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선지자를 택하든, 미가를 택하든 똑같은 패턴을 보게 될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아모스는 판단을 내리는 방식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는 점에서 독특합니다. 심판, 구원, 심판, 구원을 왔다 갔다 하는 진자처럼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저 심판과 구원만 반복하는 것뿐인데, 이 점이 어떤 사람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사실 저는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선지자들과 성경에서 발견하는 또 다른 원리는, 아이러니하게도 심판이 종종 구원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나아지기 전에 먼저 더 나빠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정결케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것은 의로운 남은 자들을 만드시고, 그 의로운 남은 자들을 사용하여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심판은 정결케 하는 것이며, 따라서 구원과 함께합니다. 이 둘은 상반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둘은 함께 갑니다. 심판은 구원에 기여합니다. 제 말은, 궁극적인 본보기는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 곧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을 견뎌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가져다줍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구원을 가져다줍니다. 구약성경에서 이 주제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더 나아가 아모스는 모세를 바탕으로 예언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는 모세, 그리고 열왕기상 8장의 솔로몬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구절들은 자주 읽지 않았지만, 이 구절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꼭 읽어보고 싶습니다. 아모스를 다루는 것 외에도, 선지자들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심판과 구원을 마주할 때, 마치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다소 모순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은 모세의 말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자, 성경 비평가들은 모세가 신명기 30장을 썼다고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들은 이 장을 여러 선지자들의 글 뒤에 놓으려 하지만, 본문을 보면 모세가 말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촉구해 왔습니다. 28장에서 그는 다가올 심판에 대해 경고했는데,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아모스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선지자들을 이해하는 데 기본이 됩니다. 내가 너희 앞에 둔 이 모든 복과 저주가 너희에게 임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가운데로 흠으시는 곳마다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새기면, 모세는 이 백성과 함께 살았기에 저주가 자신에게 임할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지만, 결국에는 주님께서 그들을 포로로 보내셔야 할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고, 당신이 유배 생활을 하게 되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당신과 당신의 자녀가 주 하나님께 돌아올 때, 회개가 근본임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소유권을 갖고, 인간의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주님은 여기서 “내가 네 마음을 바꾸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주 하나님께로 돌아와,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순종하기 시작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 없이는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고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 알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요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영이 그들의 마음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들은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책임감은 매우 강하고 근본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운명을 회복시켜 주시거나 네 처지를 돌이켜 주실 것이다. 운명은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다. 네가 말하는 것은 돈에 관한 것이냐? 아니다. 네 운명을 돌이켜 주시고 너를 붙잡히 여기시어 너를 흠으셨던 모든 민족에게서 다시 모으실 분은 바로 그분이다.

네가 하늘 아래 가장 먼 땅으로 쫓겨났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아 돌아오게 하실 것이요, 네 조상의 땅으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이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암시하는 것으로, 이 말씀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께서 너를 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바로 이 부분에서 주님께서 영적으로 기적을 행하시는데, 우리는 결코 순종을 지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분께서 무슨 일을 하실지 주목해 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예레미야는 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구약은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의 백성이 회개할 때 그들을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책임은 하나님의 이 사역의 촉매제이며, 그 다음에는 백성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너희가 여호와께 순종하라고 서로 권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모든 사람이 여호와께 순종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원수들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다시 여호와께 순종하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면 주 네 하나님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몸의 소생과 네 가축의 새끼와 네 땅의 소출을 크게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이 모든 저주가 물러갈 것이다. 주께서 네 조상들을 기뻐하셨던 것처럼 다시 너를 기뻐하시고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이는 네가 주 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계명과 규례를 지키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가능하다.

결국 그가 시작했던 그 지점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즉,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의로운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고, 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하도록 일하시지만,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부터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분은 그들을 약속의 땅, 족장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데려오시고, 그들을 변화시키십니다. 이것이 바로 아모스가 여기서 묘사하는 바입니다.

그는 모세의 약속이 실현될 날을 그려보고 있습니다. 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날, 그러니까 오늘, 내가 체로 남은 자들을 보존하고, 죄인들을 멸하고, 심판으로 정결하게 하고, 이제 나를 따르는 죄 없는 자들을 남겨 두었으니,

그날에 일어날 일은 이러하다. 내가 다윗의 무너진 초막을 회복하고,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며, 폐허를 복구하여 본래처럼 재건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보세요, 이건 아모스가 아닙니다. 다윗 왕국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로 떼어서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다윗 왕위는 고난의 시기를 겪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 유다는 예전만큼 강력하지 못했고, 무너진 성벽과 폐허로 뒤덮인 피난처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사실상 “내가 다윗 제국을 이전의 영광으로 되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 왕국이 끝난 후에야 비로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유배 이전 시대에, 에돔의 남은 자들과 내 이름을 지닌 모든 민족을 차지하기 위해 이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 이 모든 일을 행하실 여호와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윗 언약은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와 같은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들은 성취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장차 원수들을 물리칠 때에 대해 언급하는 다른 구절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전쟁을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주변에 적대적인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공감이가겠지만, 성경의 다른 구절들과 함께 생각해 보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에돔과 암몬 사람들을 정복할 것이고, 그 외의 모든 나라들도 정복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있을지조차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의 본질적인 성취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다윗 왕조의 성취입니다. 다윗 통치 아래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강하고 강력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주변 국가들보다 훨씬 강력하죠. 하지만 전쟁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두고 봐야겠죠.

진압해야 할 반대 세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는 11장에서도 다윗 제국이 회복될 것이라고 묘사합니다. 다윗은 적대적인 나라들을 물리침으로써 다윗 제국을 세웠고, 따라서 미래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 즉 다윗의 회복으로 묘사할 때, 자연스럽게 다윗 제국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들은 적을 물리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두고 봐야겠죠. 그리고 네, 저는 새로운 다윗, 이상적인 다윗,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를 통해 제가 이 주장을 변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있는 곳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주장이 교회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확립된 왕국이 있을 겁니다. 이사야가 11장에서 그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새로운 다윗이 되어 이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만약 그가 처음에 어느 시점에 적들을 쓰러뜨려야 한다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어쩌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 바로 그것일지도 모릅니다.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다윗 왕조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이 일은 예수님을 통해 일어날 것이며, 예수님께서 열방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지닌 열방을 보십시오. 흥미롭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을 지닐 때, 그것은 히브리어로, 내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모든 열방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어떤 것에 대해 이름이 붙릴 때, 그것은 당신이 그것을 소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당신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관용어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책의 서두에서 본 것과 일치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이 민족들은 내게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노아 언약을 통해 그들이 내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들의 주인입니다.

그들은 내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반역적인 행위, 즉 노아의 명령을 어긴 것에 대해 책임을 묻겠습니다. 즉,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동료 인간을 존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는 책 서두에서 암시한 내용과 일치합니다.

그는 특정 지역에 국한된 신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이 그의 이름을 지니고 있으며, 언젠가 다윗 왕위의 부활을 통해 모든 민족 위에 자신의 왕국을 직접 확장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천년설을 믿는 우리는 이 구절이 예수님의 왕국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예수님께서 미래에 이 땅을 다스리시고 다윗의 이상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선지자의 예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다윗 왕국의 부흥을 가져오실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제 그는 그 시기가 어떤 모습일지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적 연설 형태를 매우 면밀히 연구한 클라우스 베스터만은 이를 구원의 묘사라고 부를 것입니다. 구원의 선포가 아닙니다. 구원의 선포는 주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분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은 이미 일어난 일이며, 백성들이 그 땅으로 돌아와 모세가 약속했던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가정 하에 기록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록은 이 시대에 세상이 어떻게 될지, 혹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지를 보여주는 그림과 같습니다. 자, 읽어 봅시다.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날이 이르리니 추수하는 자는 쟁기질하는 자에게, 심는 자는 포도 밟는 자에게 추수될 것이라. 새 포도주, 새 포도주, 아니, 포도즙이 아니라 새 포도주라. 산에서 떨어지고 모든 언덕에서 흘러내릴 것이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시간 순서가 뒤바뀌어 있는 셈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들이 돌아와야 하지만, 이 모든 일은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그들은 무너진 성읍들을 재건하고 그 안에 살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그들은 과수원을 만들고 자기들의 양식을 먹을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을 그들의 땅에 심어 다시는 뽑히지 않게 하리라. 우리가 농사와 심고 거두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곳에서, 주님께서 뒤로 물러나셔서 “내가 이스라엘을 심으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나도 내 손으로 농사를 지을 것이다. 그들은 내가 베푸는 풍요와 내가 베푸는 복을 경험하며 농사를 짓고 수확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땅에 심어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않게 할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이다. 나는 다시 추수하는 곳으로 돌아가고 싶다.

우리는 우리가 이해하는 농업 순환을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저는 다른 글에서 이스라엘이 이곳에서 주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때 황폐했던 성읍들을 재건하고 농작물을 심어 풍성한 수확을 거둘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과장된 표현이 섞여 있습니다. 글썄요, 두고 봐야겠지만, 제 생각에는 과장된 표현처럼 들립니다. 과장된 표현을 통해, 주님께서는 4월과 5월에 추수하는 사람들이 보리와 밀을 수확할 정도로 풍성한 수확을 거둘 때를 묘사하셨습니다. 네, 4월과 5월에 추수하는 사람들은 게제르 달력에 따르면 보통 10월에서 11월에 일해야 하는 농부들이 추수를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도 아직 수확이 시작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전 수확도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 수확자들은 다시 쟁기질을 시작하기 전에 수확물을 모두 수확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보통 8월에서 9월에 이루어지는 포도 수확은 11월에서 12월의 과종기가 시작될 때쯤이면 아직 진행 중일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평범한 농사일의 순환이 있죠. 심고, 비우고, 수확하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영망이 될 겁니다. 작물이 너무

많고 포도도 너무 많이 맺혀서 도저히 제대로 된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될 겁니다.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게 바로 그겁니다. 와인이 너무 많아서 통을 넘치게 하고 언덕 아래로 쏟아질 겁니다. 포도를 가져와 통에 넣고 밟거나 다른 방법을 쓴다는 걸 기억하세요. 포도 껍질이 깨지는 순간 발효가 시작되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발효가 되는 겁니다. 알코올 도수는 14%를 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은 건 고대 이스라엘의 포도 재배에 관한 하버드 논문이었어요. 케리 월시가 제시한 수치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포도통은 포도를 압착할 때 포도로 가득 차서 언덕을 따라 흘러내려 통을 넘치게 할 겁니다. 바로 이 그림이 제시된 거죠. 풍성한 축복의 그림이죠. 농업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강조를 위한 과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과 선지자들은 종종 과장법을 사용하는데, 그게 틀렸다는 뜻은 아니죠.

수확이 얼마나 풍성할지를 강조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분께서 "내가 이스라엘을 그들의 땅에 심어 다시는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뽑히지 않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실 때, 창세기를 다시 살펴보세요. 히브리어로 "주다"라는 뜻의 동사 "나탄"이 땅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으며,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도 이 동사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은 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의 소유권을 주신 것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며 살고 있었습니다.

사실 아직 그분의 땅은 아니지만, 주님의 관점에서는 법적으로는 그분의 땅입니다.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듯이, 아모리 사람들의 죄악이 아직 극에 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그분은 인내하십니다. 나중에 여호수아를 통해 아모리 사람들에게 행하실 일을 그들에게 행하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하셨지만, 그들은 물론 실패했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기 위해 그 땅을 그의 백성에게 넘겨주실 때가 왔습니다. 사실, 레위기에서 주님은 "땅이 그들을 토해낼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을 토하게 할 성적인 죄악들의 극악무도하고 가증스러운 목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그들의 발자취를 따르면 땅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땅은 주님의 땅이고, 주님, 그 땅은 그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그 땅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기에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쫓아내실 것입니다.

그 땅은 마치 그들을 토해낼 것처럼, 정복은 죄악에 물든 가나안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지만, 동시에 주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시점에서 그분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십니다. 창세기 26장에서 그분은 이 약속을 이삭에게 다시 말씀하셨고, 야곱이 마침내 그 약속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을 때에도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전 강의에서도 그 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야곱의 땅이 되었고, 지금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며 백성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은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며, 다윗에게 하신 약속과 함께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다윗에게 이 땅에서 통치하겠다고 약속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그들의 후손들에게도 이 땅을 차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돌이킬 수 없는 언약을 성취하시는 중이시며, 그 과정에서 모세가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한 비전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그들은 저주를 경험하게 되겠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다시 데려오실 겁니다. 저는 그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교회 같은 것으로 만드는 것은 주님의 약속 성취를 보여주는 다소 허약한 방식이라고 생각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책은 신학 강의가 아닙니다. 자, 이제 책을 다 읽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이렇게 많은 세부 사항과 반복되는 내용이 있는 책을 읽을 때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유대인 친구들 중 몇몇은 선지자들을 보면 마치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끊임없이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거든요.

아니, 좀 더 자세히 읽어 봅시다. 꼼꼼히 살펴보세요. 그냥 반복하는 게 아닙니다.

미묘한 차이가 있고 주제 내에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돌아가서 다시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제시한 원칙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처음으로 돌아가서 책을 다시 꼭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과 두 번째 장에서 주님께서 심판을 가져오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북쪽 왕국 이스라엘을 표적으로 삼으십니다. 주님의 날이 다가오고 있으며, 그것은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일곱 신탁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덕과 윤리에 대한 보편적인 기준을 어긴 나라들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을 봅니다.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요약할 때 제가 즐겨 하는 또 다른 질문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항상 던져보는 좋은 질문입니다. “이 책이나 이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배우는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배우는가?” 저는 신학을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학은 바로 이 지점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신학입니다.

여기서 주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주제를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열방과 어떤 관계를 맺으시고,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과도 어떤 관계를 맺으시는 걸까요? 아모스 신학을 연구한다면, 저는 소선지서 신학을 연구한 적이 있는데, 1992년 무디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에 실린 내용입니다. DTS 교수들이 구약과 신약의 성경 신학을 연구했고, 저는 소선지서 신학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모스의 신학을 깊이 생각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보편적 도덕과 윤리 기준을 어길 때 나라들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거기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모스가 등장한 고대 근동 지역의 맥락에서는 매우 급진적인 주장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민족은 각자의 수호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민족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고, 제가 어느 정도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복습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반복입니다. 반복은 배움의 어머니라는 것을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라들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분은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시며, 아모스는 나중에 이 사실을 더 분명히 밝힐 것입니다. 그분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은 여기서 분명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공의로우시며, 선하시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분은 기준을 가지고 계셨고, 그 기준을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다른 사람들 속에서 나의 모습을 존중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것이 어겨질 때, 그분은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주권자이시며,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는 그분이 거룩하고 공의로우심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첫 부분만으로도 하나님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런 다음 2장 후반부로 넘어가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집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분명히 계시하신 백성에게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두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주권자이시지만, 모든 민족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연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시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을 보면,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속에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셨기에, 아무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민족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관찰하다 보면, 자연 안에 갈등이 존재하는데, 이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바깥세상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푸른 하늘과 푸른 풀밭을 우리는 그저 당연하게 여깁니다.

여기에는 창조주의 본성을 암시하는 디자인과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즐길 수 있도록 이와 같은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당신의 백성에게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두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학에서 자연을 통한 일반 계시와 하나님께서 오셔서 택하신 선지자나 다른 어떤 것을 통해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특별 계시를 구분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분이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입니다. 그분은 족장들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셨으니, 그들은 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율법에 자세히 명시된 하나님의 도덕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분명히 계시하신 당신의 백성에게 더 높은 도덕 기준을 두십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된다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끔찍한 이교도들과 그들이 저지르는 끔찍한 일들을 그저 손가락질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만큼 많은 빛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이 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그분께 반항한다면 그들이 하는 일보다 더 악할 수도 있습니다. 3장 1절과 2절은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됩니다.

주님은 당신의 언약 백성에게 더 많은 것을 기대하시며, 우리는 그분의 새 언약 백성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기대하십니다. 3장을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불쾌하게 여기시고 징계하실 준비가 되어 계실 때조차도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기억하세요, 이것이 인과 관계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그들에게 알리려 합니다. 벽에 쓰인 손글씨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적어도 이스라엘에서는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성경의 모든 책을 종합해 볼 때 그분의 기준과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장으로 이어지고 4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그분의 원칙을 실천하지 못하고, 종교적 전통에 안주하며, 이 세상의 장난감들을 탐욕스럽게 추구할 때—바산의 소들이 남편에게 이미 누리고 있는 삶을 더 편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그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약 백성이 그분의 원칙을 실천하지 못할 때 그들을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관계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백성을 대적하실 것이고, 당신도 그분의 백성으로서 대적하실 것입니다. 교회가 그분의 뜻과 소망을 따르지 않을 때, 그분은 교회를 대적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그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개별적으로 대면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길을 따르지 않을 때 그는 우리의 관심을 끌 것이고, 우리는 그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성한 징계입니다.

히브리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좋은 아버지라면 자녀를 징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징계에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기도와 관찰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4장에서 계속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내심 많으신 하나님은 때때로 당신의 백성을 회개로 이끌기 위해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관심을 끌기 위해 그 징계의 강도를 더 높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하셨지만, 그들은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너희를 더 엄하게 다뤄야겠다.” 5장으로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의식보다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와 다른 사람들과의 수평적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그러한 관계를 소중히 여기기를 바라시며, 자신의 윤리적 기준을 여기면서 동시에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당신이 우상 숭배자라면,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모든 종교 활동은 하나님을 감동시키거나 기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저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바울은 우상이 탐욕과 같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대신 당신에게 더 중요한 것, 하나님보다 더 큰 열정을 가진 것은 무엇이든 우상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당신이 거짓 신들을 숭배한다면 당신의 예배를 받으시고 싶어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하고 있던 일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형제자매들을 소홀히 하고 다른 사람들을 마땅히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종교 의식이나 종교 활동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5장은 이 주제에 대해 정말, 정말 훌륭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이사야 1장과 선지서의 다른 부분에서도 이 주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내일과는 달리 오늘 이 특정 강의에서 다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다른 셔츠를 입고 있는 게 보이시죠? 다른 날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어제는 화요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미워하시고 교만한 자를 적극적으로 대적하십니다.

우리는 6장에서 그것을 보았는데, 이는 성경 곳곳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자만심과 교만을 미워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수많은 부정적인 활동과 행동을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7장에서는 하나님의 겉보기에 가혹한 심판을 이해하기 위해 환상이 등장하는 부분을 살펴보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심판받는 대상에게 일어나는 일의 결과에 너무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시는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모든 것에는 항상 양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집중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종종 심판을 내리실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모스서가 바로 그런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명확합니다. 그러니 어떤 구절의 맥락이든,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심판은 임할 것이며, 8장과 9장을 통해 이어지는 다음 부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묘사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외동딸을 잃는 것처럼 비극적이고 쓰라립니다.

적절하고, 당신이 받을 만한 일이고,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신과 숨바꼭질을 해서 이길 수는 없어. 울리 울리 소는 자유로울 수 없어.
신이 널 잡을 거야.

당신이 어디를 가든 그분께서 당신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차별적이니, 그것이 위안이 됩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은 모든 죄인들입니다. 때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수도 있지만, 노아와 하박국을 기억하십시오.

차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체를 가지고 계시고, 심판하실 때 죄인과 경건한 자를 분리하실 겁니다. 그리고 경건한 자들을 사용하여 그분의 미래의 목적을 이루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본 마지막 부분, 행복한 결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에 신실하시고 백성을 향한 헌신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다윗 언약,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역사가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이상이 실현될 것을 보장합니다. 아모스서 마지막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백성을 위해 행하실 일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순종하고 그분의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이기적이고, 사랑을 요구하시는 분이예요. 아니, 그분은 우리를 만드셨고, 그분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건 좀 이기적이야. 우리가 그분처럼 되기를 바라는 거야."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분은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특정한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것은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기적이라고 비난하는 소리에 지쳐 버립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이상적인 세상이 실현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아모스서 마지막 장들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바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그분의 언약 백성에게 실현되고 있지만,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넘어 이방인들에게까지 언약을 확장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 보면 알 수 있듯이, 새 언약은 단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 그로부터 유익을 얻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에서 복음이 이방 세계에 전파되고 그들이 예배자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복음서에서 시로보니게 여인처럼 이방인들에게 다가가시며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미 이를 암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네, 아모스서 마지막에 우리가 보는 그 모습은 바로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한 그런 왕국과 세상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누리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목적이 성취되어, 영원히 그분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아모스서는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이 연구를 통해 얻기를 바라는 교훈입니다. 자, 기도로 마무리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당신께서 택하시고 말씀하신 고대 선지자들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모스의 메시지에 감사드립니다. 이 책을 통해 당신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웁니다. 당신께서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그리고 당신은 누구이신지, 공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시면서도 은혜로우신 하나님, 타락한 죄인들을 기꺼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해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가서 이러한 원리들을 실천하고, 당신께서 우리에게 처방하신 길, 즉 그리스도를 닮는 길을 따르고,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기를 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 감사드립니다. 매우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되어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고, 당신이 이 세상을 위해 계획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예수님을 통해, 그리고 그들의 죄에 대한 회개와 고백을 통해 그들을 이 왕국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로 초대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버트 치즈 박사와 그의 아모스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아모스: 사자가 부르짖으면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요? 이것은 8차시, 아모스 9:7-10, 체에 흔들어 깨우다. 아모스 9:11-15, 행복한 결말-피와 철이 올라온다 라벤더와 장미.